

청년 후계농 선정자 경제 부담 완화 집중

올해 17개 사업에 44억원 투입

익산시가 지역의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선다. 익산시는 청년농업인의 꿈과 도전을 지지하기 위해 올해 17개 사업에 4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영농창업 △생활안정 △역량강화 △상생협력 등 필요한 분야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효과가 뚜렷한 기존 사업은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신규 사업을 다수 마련했다. 특히 청년 후계농 선정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영농 창업 · 생활 안정 등 필요 분야별로 체계적 지원
후계농 선발해 매월 지원금 지급... 소득 불안정 문제 해소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힘 쓰기로

더불어 청년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안정 정책도 추진한다. 청년 후계농이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해 올해 5월 입주 예정인 제3일반산단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농가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역량강화·상생협력 분야 - 맞춤형 전문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시는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확대에도 힘을 기울인다. 농업인대학 과정에 청년탈기초창반을 편성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적 성장을 돕는다. 소규모 네트워크 활동은 청년 농업인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해 인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동아리에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업 인재 유치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청년천국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한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농업인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영농창업 분야 - 청년 후계농 성장기반 조성 지원

시는 젊음과 탁월한 능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영농 창업을 돕는다.

우선 청년 후계농을 선발해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후계농이 지역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면 연차에 따라 월 80~110만원씩 최대 3년간 영농창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첫 발부터 정착까지 소득 불안정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대표 정책이다.

이와 함께 청년 후계농은 농지와 시설 등 농업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후계농 정책자금(융자금)을 5억 원 한도까지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농업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설치 △선진영농 기술도입 기반조성 △농업용 드론지원 △농업기계 자율주행 기술도입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초기 창업농이 겪는 기반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사업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시설하우스·축사 신축이나 개보수,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해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농업 전문가와 선배 농업인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애로사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영농노하우도 전수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 후계농 네트워크



청년 농업인 현장지원

△생활안정 분야 - 정책자금 이차보전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시는 영농 창업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후계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의 이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차보전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이차보전사업은 2020년 이후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이자 0.5%를 최대 250



청년 후계농 사업설명회

만원까지 지원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지원사업은 농지, 시설 등 임차료의 5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 기반이 미흡한 청년농업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이 끝난 청년 후계농들을 위한 후속사업으로 마련됐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겨울방학 특별기획

지구의 정복자 절지동물 그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찾아온다!

세계절지동물 특별기획전

일시 2024. 12. 28(토) ~ 2025. 2. 23(일) / 오전 10시~ 오후 5시 30분

장소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매주 월요일 / 설 당일 휴관)

